

이병철 장로님과 은희자 전도사님의 추억이 담긴 이야기.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교회에서 청년때



군복무중 휴가를나와서



17살 조카와 친정집에서



17살 소풍때



17살 북한산에서



18살 소풍때



19살 교회 야유회

2017년도 표어
『지경을 넓히는
교회』
(대상 4:10)

NEW **순복음Life**
제9호

발행일 : 2017. 1. 1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문서위원회 일동)

<이달의 간증>

송미정 집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당진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우리교회에
1997. 3. 2에 등록하여 지금껏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송미정 집사입니다. 저의 삶은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성격으로 보나 기질로 보나 생활 모습으로
보나 세상 속에 파묻혀 인생의 낙을 즐기며 세상의
더러움과 유혹 속에 온갖 방탕함을 따라 갈 수밖에
없던 지극히 인간적인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수령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어 이렇게
참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해 주시는 삶으로 인
내하며 살 수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베풀
어주신 부요함으로 살아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진 사명
을 감당하며 힘차게 충성된 일꾼으로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최선
을 다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을 섬기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심 또한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것을 성도님들
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7년이 되어가네요. 저의 친정아버지는 1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받
아야 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어떻
게 할 수 없는 자식의 마음을 무어라 표현 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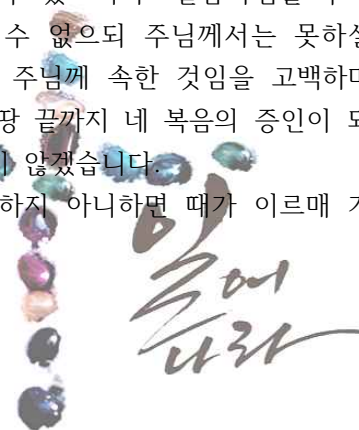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을 데리고 친
정에 가서 함께 밥을 먹으며 아버지가 웃는 것을 보는 것이 그나마 자식
으로써 할 수 있는 도리라 생각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병
원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에 다시 구멍을 뚫고 투석을 해야 한
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웠습니다.

“선생님 이식수술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
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69세였습니다. 70 다 된 노인네가 무슨 이식이
냐고 그냥 그렇게 사시라는 의사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식에 대하여 알아보며 인터넷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와 수술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1달도 채 안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
복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모든 것을 순조롭게 행사신 분은 하나
님이시구나.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더 빨리 왜
아버지께 신장 이식을 해드리지 못했을까 근심했었지만 더 일찍 했다면 우리
다희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이 또한 주님이 저를 향한 계획하심이라 생각합
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회복도 빨랐고 아버지께서는 건강을 되찾으시고 날이 갈
수록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수술을 다짐하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엄마의 신앙이 다시 회복하는 것과 아버지가 주님을 영접
하는 것뿐이라고요. 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남편의 반대도 그 어떤
수술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엄마의 신앙과 믿음은 온전하여
지고 아버지는 교회에 잘 나가시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한 번씩 나가시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시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자의 헌신을
통하여 남동생이 신앙을 다시 찾았습니다.

동생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 놀랍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교회를 핏
박하던 둘째 이모도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했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을 한심하게 생각했던 막내 고모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함
은 하나님을 믿는 친정식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우리 송미숙 권찰도 너
무 예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너무 고마워요.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심을 부여
잡고 인내의 기도로 산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서는 못하실
것이 없음을 믿으시면서 다시 한 번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 올 수 있도록 땅 끝까지 네 복음의 증인이 되
라 말씀하심을 순종하며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
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9절) 아멘



* 평신도 헌신예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 : 6)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이병철 장로-

1. 가정의 가훈이 무엇인가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자
2.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장로님만의 비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 나가는 것
3. 부인되시는 전도사님의 무엇에 반하여 결혼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바라는 점?
주님의 일에 당당한 모습, 바라는 점은 건강하게 사역 하는 것
4. 지금 성재 모습과 장로님의 그 시절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견하고 자랑스러움
5. 가장으로서의 삶의 무게를 느낄 때는 언제 이신가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며 부모로서 무엇인가를 채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 때
6. 바라는 며느리상과 사위상을 스케치 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으뜸으로 하고 부모 공경하며 형제간 우애가 좋은 사람
7. 만일 지금 당장 죽는다면 걸리는 사람은? 혹시 전도사님 재혼해도 되세요?
희자, 재혼은 당연 찬성
8. 7번 질문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장로님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 48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사랑하지만 소홀했던 사람들과 같이 있기
9. 전도사님께서 해 주시는 음식 중 제일 맛있는 것은?
모든 음식이 맛있지만 그중에서 계장
10. 평소에 암기하고 있으신 성구는 몇 개인가요?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글쎄~ 몇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한 열 개쯤
11. 장로님께 당진순복음교회란?
세워나가야 할 내 집
12. 장로님 자신이 싫어질 때는 언제 신가요?
교만해지는 나를 발견할 때
13. 목회자의 남편으로서의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내가 전도사님의 사역에 제한이 되지는 않는가 생각이 들 때
14. 세 자녀를 향한 바람과 비전을 말씀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되길
15. 어린 시절 장로님은 어떤 학생이고 어떤 아들이고 친구들에게 어떤 동무였나요?
엄청 철부지.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놀기 좋아하는~
16. 원로 장로님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늙은 교사
17.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점수를 매긴다면? 그 이유와 근거는?
50점. 더 많이 성장 할 수 있으니까. 성장에는 끝이 없다고 하니까

<새가족 소개>

-이신애 성도-



경기 김포에서 태어나 쭉욱 사시다가 여러 지인분들의 소개를 통하여 만난 청년을 따라 당진으로 제 2의 터전을 마련한 이신애 성도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35년 이상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부모님 아래에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변 지인분들을 통하여 만난 남편의 첫인상은 그저 착해보였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결혼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다시 없을 좋은 사람이라고 부추기는 주변분들 덕분에 어찌 보면 조금 어떨결에 결혼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만족스런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자상하신 시부모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사랑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즐거운 교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훌륭하고 좋으신 목사님을 만나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목사님과 사모님을 뵈는 때면 같은 사역으로 연일 고생이신 친정 부모님을 보는 듯 하신다고~~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색한 부분이 많아 앞에 나서서 일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좀 더 익숙해지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아닌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백하신 우리 이신애 성도님 입술의 고백이 참으로 기분 좋게 만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어여쁜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웃으십시오!



요즘 이 구역 아주 핫~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의 뜨거운 신앙생활과 헌신의 모습과 부부애로 똘똘 뭉친 충만구역의 박영만 집사님, 이재동 집사님, 나인철 집사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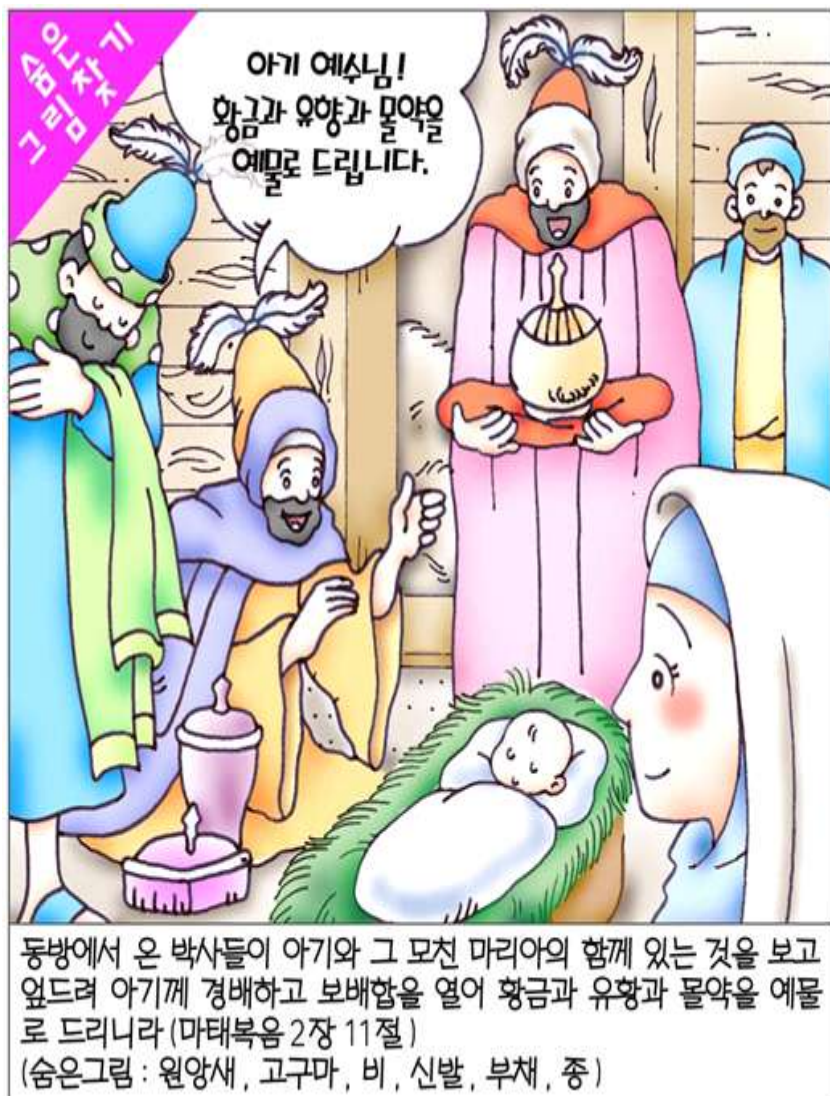
지난 부활절 울동대회에서는 구역장님의 지휘 아래 훌륭한 울동으로 성도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도 하셨습니다! 순종과 교회 사랑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빨간 앞치마 두르시길 서슴치 않으시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흥겹게 즐기시고 또 쟁반 들고 음식 나르기를 마다치 않으시는 술선수범의 모습이 많은 남자 성도님들의 분이 되시네요^^ 아마 가정에서도 쭉~~우욱 연결된 모습이라 생각 됩니다.

막강 충만구역 집사님들~~

앞으로도 꾸준한 모습 기대하며 2017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숨은그림찾기



* 올동단 헌신예배 *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스고 치며 줄 주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150:3-5)



<감동적인 이야기>

좁은 법정 안에 중년 여성 부장 판사가 들어왔고, 이미 무거운 판결을 예상하고 잔뜩 움츠리고 있는 소녀를 향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 힘차게 외쳐 보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판사의 요구에 머뭇하던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이 세상에서..." 라고 따라 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따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점점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소녀는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칠 즈음에 와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법정에서 '외치는 판결'로 불처분 결정을 내려 참여관 및 실무관 그리고 방청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녀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어려운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장래에 간호사가 꿈이었던 학생이었는데 작년 초 집으로 가던 길에 남학생 여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소녀는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았고 그 충격으로 흩어머리는 중풍으로 쓰러졌으며 소녀는 그 때부터 학교를 갈 수가 밖에 없었고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는 "누가 가해자 입니까? 누가 이 아이의 아픔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주었습니까? 잘못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입니다. 이 소녀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유익한 방법을 이끌어낸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주어야 합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소녀를 앞으로 불러 세우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두 손을 꼭 짚어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

이 사건은 서초동 법원청사 소년 법정에서 16세 소녀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불처분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아픔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



성탄 축하제

2016.12.24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노 19:38)

<신앙인 소식>

크리스천 배우 정애리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 기부”
한 퀴즈프로그램에서 밝혀… “정말 아깝지 않다”

크리스천 배우인 정애리 씨가 한 달에 1천만 원 정도를 정기적으로 기부한다고 밝혀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9일 여러 언론들에 따르면 정애리 씨는 최근 진행된 KBS 2TV 퀴즈프로그램 '1 대 100' 녹화에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MC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후원하는 아이들이 많아 대가족의 가장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싫든 좋은 일을 계속 해야 했다” 고 했다.

이어 “돈이 아깝지 않느냐” 는 MC의 질문에는 “정말 아깝지 않다.

후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계속 후원을 하고 싶다” 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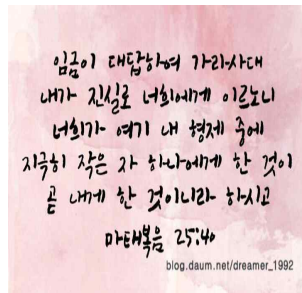
또 “최후의 1인이 된다면 상금 5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묻자, 정애리 씨는 이 역시 “기부를 할 것” 이라고 했다고. 정애리 씨는 평소 봉사활동 역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얼마나 돌아보며 섬기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 연재영 믿음만이... - essay.34 -



*과거영이나 미래영의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연재영 믿음입니다.

<이달의 제철음식>

1월 우엉, 1,2,3월 바람이 들지 않고 너무 건조하지 않는 것, 껍질에 흠이 없고 매끈... 더덕, 1,2,3,4월 꼭이 굵고 속이 희고 끈적이지 않은 것으로 굵을 수록 맛과 효능이...	딸기, 1,2,3,4,5월 꼭지가 마르지 않고 진한 푸른색을 띠는 것이 좋다. 과육의 붉은... 한라봉, 12,1,2,3월 한라봉은 껍질이 얇은 것이 당도가 높다. 껍질이 아주... 아귀, 12,1,2월 살이 단단하고 몸의 색이 검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고른다.	과메기, 11,12,1월 통통하고 살이 단단한 것을 고른다. 꼬막, 11,12,1,2,3월 껍질이 깨지지 않고, 물결 무늬가 선명하고, 깨끗한 것을 고른다.	명태, 12,1월 눈이 맑고 아귀미가 선홍색을 띠며 내장이 흘러나오지... 도미, 11,12,1,2,3월 몸은 길동굴고 납작하며 몸빛은 황색, 홍색, 회색 등이다. 손으로... 삼치, 10,11,12,1,2월 살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은 파하고 배와 물 전체가 단단... 우엉은 신장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이눌린을 함유하
--	---	---	--

고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섬유소가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하다.
'인삼의 사촌'이라고 불리는 **더덕**은 별칭에 걸맞게 영양가가 높으며 원기 회복과 가래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과메기는 주로 경북 포항 구룡포에서 생산되는 겨울철 먹거리로 청어나 꽂치를 바닷바람에 얼리고 녹이기를 반복하면서 그늘에서 말린 것이다. 과메기는 칼슘이 많이 들어 있어 어린이 성장에 도움을 주며 오메가 3 지방산도 풍부해 노화방지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꼬막**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으며 철분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
딸기는 1~5월까지 생산되는 과일로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 C가 풍부하다.
한라봉 역시 비타민 C가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감기예방에 도움을 준다.

유머

#공부란?

- (+)×(+) =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 (+)×(-) = 하다가 안하면 안한 것만 못하고
- (-)×(+) = 안하던 공부를 하려니 될 리가 없고
- (-)×(-) = 아예 포기하고 놀아 보리니 꼬이는 인생이라...

백만장자 중에 학창시절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고 하네요.

#사모님을 기절시킨 이메일..?

강원도에 사는 사업가 김씨가 부산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아내에게 이메일을 썼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아내의 이메일 주소를 잘못 쳐서 메일이 엉뚱하게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김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발송되고 말았다. 목사님 사모님은 이메일을 받아 읽고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정신을 회복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써 있었다.

"여보, 무사히 도착했소. 그런데 이 아래는 정말이지 무척 뜨겁구려."

#인간, 얼마나 위대한 걸작인가

이성(理性)은 고귀하고,
능력(能力)은 무한하고,
행동(行動)은 천사같고,
이해(利害)는 신(神)과 같다.
그러한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과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셰익스피어-

<이달에 issue>

독감유행 주의보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독감유행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단체 활동을 하는 곳은 더욱 더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예방 접종은 필수 항목이고 개인 위생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독감은 무서운 바이러스였다.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 동반하기 때문에 걸리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며 어느 순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 많은 독감 예방 백신과 약들이 개발되어 독감은 더 이상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닌 아프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하는 바이러스가 되어있다.

세상은 점점 더 발전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위해 개발해 나갈 것이고 적응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어 나아 갈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 속 독감 예방수칙

1.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2.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일 때는 마스크를 쓰고 옷깃 등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3. 손을 자주 씻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킨다.
4. 고열이나 인후통 호흡기 증상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성경읽기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다고 말하는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고 있었던 듯 방바닥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니?"

"응. 그런데 읽고 나면 그뻘, 도무지 머리에 고이질 않아!"

"방바닥에 엎드려서 읽었던 말이야?"

"응. 어느 땐 누워서도 읽는걸"

"세상에...넌 병을 옆으로 누워 놓고 물을 담을 수 있니? 또 병을 뒤집어 놓고 물을 담는 재주 있어? 네 머리에 왜 성경이 고이지 않는지 이제야 알겠다!"

성경을 읽을 때는 신문이나 만화책 보듯 아무렇게나 보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성경을 대하면 성경도 여러분을 아무렇게나 대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맑은 정신일 때, 가장 바른 자세로 가장 단정하게 앉아서 가장 진지하게 보세요. 성경은 그만한 대접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총, 마약, 성경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기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세관원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혹,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하셨다가 돌아가실 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너무 위험한 물건들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소지할 수 없습니다."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은 대단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그것들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총은 사람의 육신을 죽입니다. 마약은 사람의 정신을 죽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입니다.

그러나 총이나 마약이나 성경의 원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총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고, 응급환자를 살리는 일엔 아주 소량의 마약이 특효이고, 성경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자신의 파리한 존재를 들추어 내며, 숨겨두었던 죄를 자백하게 하며, 욕심과 거짓과 권모와 술수를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망의 권세아래 있는 것을 확연히 깨닫게 합니다.

그런 다음 성경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삶을 허락합니다. 성경은...

<이단 특집>

신천지(新天地. 새 시대)

신천지는 한국의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은 이단 사이비 단체이다. 그럼 왜 신천지가 이단인가?

1.첫째로는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러한 사실만을 믿어서는 신앙의 초등학문이요, 어린아이요, 젖먹이요, 참된 구원자인 이**씨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단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신약의 약속한 목자는 바로 이**씨라는 것이다. 이것이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 기존교회 성도들을 끝없이 미혹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에서는 성경 66권이 분명히 말하는 참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 신약의 목자를 이만희 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전적으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단을 가리켜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2.둘째로는 신천지에서는 성령을 천사들로 이야기한다. 물론 이**씨를 보혜사라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 부르는 신천지의 찬송도 있다. 성령은 이**씨가 아니라 성령은 천사들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령이 천사들이라면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성령을 높이 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고 했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수종자와 종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이 천사라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아닌 천사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에서는 성령도 부인하는 단체가 되는 것이다.

3.셋째로 이단 신천지에서는 그 교주인 이**씨의 육체적 영생설과 신천지를 추종 할 때 동일하게 육체적 영생을 얻는다고 미혹을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이미 신천지를 깊이 추종하던, 신천지의 핵심 멤버들 가운데 암으로 죽은 신천지인들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또한 이**씨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은즉 언젠가는 다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영생설을 주장하였지만 죽어 땅에 묻힌 것처럼 이**씨도 동일한 전철을 밟을 것이 자명하다. 이래도 아마 신천지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한다. 이것이 기존교회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신천지에서는 이**씨를 믿어, 즉 참된 목자를 믿어 죄 사함을 받았으니, 육체까지라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이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거짓된 가르침에 분명하다.

이와 같이 원수마귀사단은 금방 들어날 거짓말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들어간다. 온갖 거짓과 술수를 묘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씨를 추종하게 만들기 위하여 친구약 66권을 짜 맞추기 식으로 이용을 한다.

바라건대 우리 가운데 단 한사람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혹 이단에 미혹된 자가 있다면 바른 진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

<기사>

반사회적 폐해로 경계 대상이 되고 있는 사교집단 신천지, 신천지에서 교주격인 이만희 총회장은 태양에 비유되거나 신도들의 대중집회 체육대회 등을 통해 우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그리스 신화가 동원되고 그리스 신화 속신을 본 뜬 밀랍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찬송가에서 만희왕으로 칭송됩니다. 최근엔 이만희 교주를 종교대통합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인물로 왜곡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인 정의의 여신 디케(우)를 패러디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 밀랍인형(좌).

그의 전시관에는 실물크기의 이만희 교주 밀랍인형이 서 있습니다.

황금색 용포로 보이는 의상을 입은 이만희 교주는 왼손에 저울을 오른손에 흰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와 비슷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데 다른 점은 칼 대신 흰 돌을 들고 있습니다. 디케는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신화 속 인물로 사법부의 상징물에서도 그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마치 심판자이자 정의의 신인 양 신격화 된 겁니다.

신천지 탈퇴자는 “흰 돌은 심판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저울도 말씀을 달아보는 길로 언급을 하면서 자기가 계시록 2-3장의 12가지 복을 받고 유일하게 약속의 목자라고 하면서 심판자라고 하는 거죠 ”

이만희 교주는 지난 2012년 신천지 체전에서 황금색 용포를 입고 왕관까지 쓰고 나와 세간에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정의로운 신으로까지 신격화되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신년축복예배 / 1월 1일
2. 직분임명식 및 공동회의 / 1월 1일
3. 제직헌신예배 / 1월 8일
4. 헌아식 / 1월 15일
5. 축구부 전지훈련 / 1월 16일~20일, 제주도
6. 구역장헌신예배 / 1월 22일
7. 구역장 단합대회 / 1월 23일

◎ 공지사항

1. 6차 성지순례 / 2월 21일~3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0명 참석

◎ 이달의 교우소식

1. 새직분 임명자 / 집사 - 조상길권찰 이화순권찰 금영미권찰
정현미권찰
권찰 - 김영남성도 김동안성도 윤홍기성도
송진문성도 민이삭성도 한예지성도
김소현성도 김학순성도 임경아성도
조은희성도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권찰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성도



시사용어 Briefing

페이코 (Pay-Go)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 라는 뜻으로 정부의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지출이 계획 될 때마다 세수 증가, 타 지출의 감소 등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입법시키는 것이다

제네바 협약

적십자 조약이라고도 하며, 전쟁 등의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에서 발생한 부상자. 포로 등을 위험과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전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노노스족 (Nonos 族)

큼지막한 로고나, 유명한 디자인의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로, 브랜드의 네임밸류보다는 개인적인 차별성을 중요시한다. No long, No design 에서 유래된다.

사회의 극장화 (社會-劇場化)

자신이 속한 국가나 사회의 위기에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으로, 사회의 위기를 '남의 일' 로 파악해 자신과 분리하는 심리 현상. 개인의 타자화, 관객화와 연관된다.

큐싱 (Qshing)

QR코드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가짜 금융사이트, 어플로 연결해 정보를 빼내고 결제, 이체를 유도하는 신종 금융사기에 해당된다.

블랙리스트제도 (Black List)

단말기 자급제와 함께 도입되어, 도난 되었거나 분실된 단말기 아니면 인터넷, 해외 등 어디서 구입하더라도 단말기에 자신의 USIM만 꽂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화이트리스트제도 (White List)

블랙리스트 제와는 반대로, 휴대폰을 구입한 후 사용을 위해 단말기의 개별적인 등록이 필요하다. 휴대폰 개통에 대한 전권을 이동 통신사가 가진다.

마이크로 모먼트 (Micro Moment)

스마트폰이 보급되며 생긴 용어로, 알고 싶은 하고 싶은 사고 싶은 것을 바로 모바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해 욕구를 즉시 충족시키는 현상이다.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

<예화>

1. 겸손

벤저민 프랭클린은 미국 건국 초기의 지도자로 대통령만 못 되었을 뿐 자기
가 원하는 모든 중요한 직위를 다 가져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학
교를 다닌 기간은 고작해야 2년 남짓이었습니다.

그가 22살이었을 때에 스스로 반문하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
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자기반성을 거쳐 12가지 덕목들을 뽑아 자신의 좌우
명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절제: 과음 과식을 하지 않는다.

둘째-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은 시간에 한다.

넷째- 결단: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째-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은 산다.

여섯째-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째- 중용: 극단은 피한다.

열째- 청결: 몸, 옷, 집이 불결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열한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열두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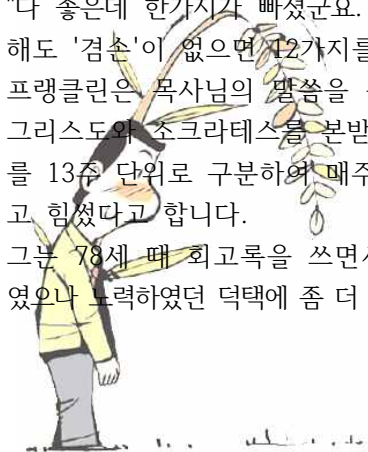
프랭클린은 이상의 12가지를 적어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 좋은데 한가지가 빠졌군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 12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랭클린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첫 번째 항목에 겸손을 넣고 '예수
그리스도와 초크라테스를 본받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활 단위
를 13주 단위로 구분하여 매주 한 항목씩 묵상하고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려
고 힘썼다고 합니다.

그는 78세 때 회고록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완벽의 경지에는 오르지 못하
였으나 노력하였던 덕택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 앞에

이영주 사모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데

엄마라는 큰 이름을 내 앞에 주셔서

그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낙심한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갖게 되었고

절망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소리 내어 울고 싶어도 참으며 웃음을 지어야 했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빨리 찾아야 했고

아픔 속에서도 빠른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이유는

나는 엄마이니깐.....

나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안되니까

또 다짐하며 결단하며 도전합니다.

나의 엄마가

곤고한 삶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힘든 여정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나도 엄마라는 이름 앞에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며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아가렵니다.

